

$$c(a, t) = b(t) \cdot e^{-rt} \cdot p(a) \quad \textcircled{9}$$

가 된다.

여기서 $c(a, t)$ 는 시점 t 에 연령이 a 인 사람들의 비율이고, $b(t)$ 는 시점 t 의 출생률이다. 그런데 출생률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b(t) = b$ 다. 그러면 위의 식 ⑨는

$$c(a, t) = b \cdot e^{-rt} \cdot p(a) = c(a) \quad \textcircled{10}$$

가 된다. 즉 연령구성은 어느 시점에나 동일하고, 출생률, 인구성장률과 생명표상의 생존함수로 표현한다.

안정인구의 연령분포, 출생률, 사망률, 그리고 성장률은 모두 $m(a)$, $p(a)$ 스케줄에 따라 결정된다. $m(a)$, $p(a)$ 스케줄이 가해지는 인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인구는 그 스케줄에 '고유한' 특성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 동일한 스케줄을 전혀 다른 인구, 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나이지리아에 적용한다면 두 인구의 인구학적 양상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하게 될 것이다. 두 인구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연령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간에, 동일한 출생률과 사망률, 스케줄을 적용받게 되면 동일한 연령구조를 갖게 된다. 즉 두 인구는 과거를 잊는다. 이런 특성을 에르고드성(ergodicity)이라고 한다.

4. 안정인구모델의 의미

안정인구모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한 인구에서 출산력과 사망력이 오랜 시기에 걸쳐 일정하다면 그 인구의 연령구조 또한 일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인구가 고령화되는지 아니면 젊은 인구가 되는지는 출산력과 사망력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출산력과 사망력에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인구모델은 출산력과 사망력의 장기적인 변화의 영향과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연구도구이다.

관련표제

생명표, 인구변천이론, 형식인구학

참고문헌

- Bongaart, J. and W. O'Neill (1972). "A Systems Model for the Population Renewal Process". *Demography* 9(2): 309-320.
- Preston, S., H. Patrick and G. Michel (2001). *Demography: Measuring and Modeling Population Processes*. Copenhagen: Blackwell.
- Shryock, H., S. Jacob and Associates (1976).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Washington, D.C.: Bureau of the Census.
- Siegel, J. and A. David (2004).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Second Edition*. New York: Elsevier, Academic Press.
- Tuljapurkar, S. (2008). "Stable Population Theory". S. Durlauf and L. Blume (eds.),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Second Edition.

은기수

인구정책: 분산정책

인구정책은 인구변동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적 조치, 행정적 사업 및 구체적 시책을 말한다(Demeny, 2003). 인구정책은 그 목적과 수단에 따라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나눈다. 인구조정정책은 인구동태(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구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접근 방법을 말한다. 인구대응정책은 인구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나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식량정책, 자원개발정책, 주택정책, 고용정책, 경제개발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을 포함한다. 인구분산정책은 출산 조절정책, 인구자질 향상정책과 함께 인구대응정책에 포함하는데, 인구의 지역 간 균형적 분포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

1. 분산정책의 의의

인구분산정책은 인구를 지역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국민 전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제개발과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대도시의 비대화 현상 및 그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인구의 지나친 배출로 노동력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인구가 대도시로 과도 집중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도시에는 심각한 실업, 교통, 주택, 교육, 사회 문제가 대두한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인구분산정책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인구분포의 불균등을 완화하는 데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국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 인구이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가 안의 인구이동은 과대도시화를 가져온다. 전 세계의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은 1950년에 30%이던 것이 2014년에 54%로 급증했으며, 2050년에는 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PD, 2014). 경제·사회 개발과정에서 인구의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는 농촌 주도 사회에서 도시 주도 사회로 변화하게 한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라 노동력 배분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그리고 다시 3차 산업으로 점차 집중하여, 농업과 비농업 부문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된다. 이와 같은 노동력 배분의 집중이 변화하고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구의 도시화는 어떤 도시에 인구가 몰려드는 정도에 따라 제1도시화에서 제5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제1도시화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과정을, 제2도시화는 전체 도시 중에서도 특히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과정을, 제3도시화는 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과정을, 제4도시화는 수위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과정을 말하며, 제5도시화는 수위도시의 인구집중이

완화하면서 수위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과정을 말한다.

많은 나라에서 하나의 거대도시가 도시체계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도전을 내포한다. 그러나 거대도시의 경제 및 문화 활동이 일체화되어 주민들은 거주자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거대도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로 이주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 신용, 기초교육, 보건서비스, 보육서비스,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구 유출지역과 유입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하여 인구를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인구배출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중요한 인구분산정책인데, 그러한 요인에는 개발자원의 불균형한 배치, 부적절한 기술사용, 가용토지 접근 제한 등이 있다. 이처럼 중소도시 개발과 함께 농촌지역의 발전 노력도 인구분산정책에 포함한다.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서 비롯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은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회의(ICPD)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세계인구회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천프로그램에서도 인구의 공간 배치와 인구이동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2. 분산정책과 지역개발

인구분산정책은 주로 네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농촌지역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출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농촌에서 발생하는 이주를 이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며, 셋째는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도시의 주택문제나 사회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도시지역으로 이주민을 흡수하는 것이다(De Jong and Harbison, 1981). 한편, 지역개발은 인구분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신고전파 경제원리의 수용 여부에 따라 기능적 개발과 영역적 개발로 구분하기도 하고, 개발 주도권에 따라 내생적 개발과 외생적 개발로 구분하기도 한다.

1) 분산정책의 유형

분산정책의 첫 번째 유형은 농촌지역 인구의 전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농촌의 전출을 억제하는 것은 이주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토지개혁은 자원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이주의 정서적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취업기회를 제고하고 비농업부문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도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분산정책의 두 번째 유형은 이주의 방향을 다른 농촌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는 의도를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도로 바꾸도록 하는 정책, 도시지역 거주자를 농촌지역이나 신개발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 그리고 이주자를 신도시에 재배치하는 정책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일부 국가와 러시아에서 시행된 미개발지역으로의 이주정책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내용에는 이농민의 농촌귀환도 포함하는데, 16세기와 17세기의 프랑스와 영국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개한 1950년대 말의 대약진운동과 1968년 모택동이 실시한 하방도 대량의 도시민을 농촌으로 이주시킨 경우다.

세 번째 유형의 인구분산정책은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성장거점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대도시권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종착지를 분산시키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런던 근교에 건설된 뉴타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된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성장거점은 지방의 특정 지역에 산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인근 지역에서 기존 대도시로 향하던 인구이동의 흐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지역개발전략의 유형

지역개발전략은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을 보는 관점

에 따라 기능적 개발과 영역적 개발로 나눈다(신동호, 1984). 기능적 개발은 국토 전체의 공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감안해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개발계획지역은 물론 그 주변 지역까지 개발의 효과가 확산된다. 예를 들어, 도시를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지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다. 영역적 개발전략은 성장거점개발이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지배-종속관계 때문에 실패하기 쉽다는 논거에서 출발하는데,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힘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힘까지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영역적 개발의 한 전략모형인 농도적 개발전략은, 개발권역의 지리적 공간을 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지역으로 설정하고, 각 지역은 외부의 지원 없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련된 사안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분산정책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구분산정책의 유형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공업화가 도시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기술혁명을 통한 공업화는 도시의 고용기회를 증가시켰으며, 기계화된 농업체계는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쉽게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의 공업화는 노동력 수요를 증대하며 인구이동을 유발하여 도시화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의 재분포현상을 유도하였다. 도시의 산업적 환경 - 예를 들어 집적경제의 이점 등 - 은 새로운 기업가들을 도시로 흡입하는 유인요인이 되었으며, 도시의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 - 학교, 병원, 박물관, 경기장 등의 각종 위락 시설과 공공시설 - 도 도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선진국의 분산정책은 주로 도시지역 자체의 공간계획을 통해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자체를 감소하는 데 초점을 둔다. 네덜란드의 분산정책은 도시지역의 중심지역을 없애고 도시지역

안에서 인구, 일자리, 서비스 및 위락시설을 골고루 분산함으로써 다핵화한 도시의 형성에 초점을 둔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에 도시화현상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데, 선진국과는 달리 공업화의 진전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한정된 도시에서만 가능한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해 진입해오는 농촌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의 실업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도시화 추세 속에 몇몇 특정 도시로 인구가 과다하게 집중하여, 과잉도시화나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 때문에 주택부족과 교통난, 각종 공해 등이 발생해 오히려 집적경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분산정책은 지역개발을 통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의 규모를 감소하는 데 초점을 둔다.

관련표제

국제인구이동, 도시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인구분포와 밀도, 인구이동의 원인과 결과, 인구정책의 의의와 체계, 한국의 인구분포 변화와 도시화

참고문헌

-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2002). 《한국의 인구 2》. 통계청.
- 신동호(1984). “지역개발전략의 유형 비교 연구”. 《지방정부연구》 2(1): 197-212.
- 이홍탁(1994). 《인구학: 이론과 실제》. 법문사.
- 이희연(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전면개정 5판, 법문사.
- 한주성(2015). 《인구지리학》 제2개정판. 한울아카데미.
- De Jong, G. and F. Sarah (1981). “Policy Intervention Considerations: The Relationship of Theoretical Models of Planning” in G. De Jong and R. Gardner(eds.), *Migration Decision M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281-290. New York: Pergamon Press.
- Demeny, P. (2003). *Population Policy: A Concise Summary*. Policy Research Division Working Paper No.173. Population Council.

Demeny, P. and McN. Geoffrey (eds.) (2003). *Encyclopedia of Population*, Vol.I, II. New York: McMillan Reference.

UNPD(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Highlights(ST/ESA/SER.A/352)*. <http://esa.un.org/unpd/wup/highlights/wup2014-highlights.pdf>.

정기원 · 이상일

인구정책: 이민정책

1. 이민정책의 의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원하지 않는 사람, 특히 극도로 빈곤한 외국인의 자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설동훈, 2005). 그러나 과거 중상주의 국가는 국력이 인구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고, 자국민의 이출(移出)을 규제하고 외국인의 이입(移入)을 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설동훈, 2000). 즉, 국가의 국경 통제 내용과 수준은 일률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이민 현상은 세계노동시장 또는 나라 간 경제 상황 등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어떤 나라 정부가 자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에서 이민자를 유치하려는 정책을 편다하더라도, 그 나라 노동시장이 외국 인력을 끌어들이기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면 실제 이민자 충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어떤 나라 정부가 자국의 과잉인구를 우려하여 적극적 해외송출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그 나라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이출을 통한 인구감소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은 인구 송출국과 유입국의 시장-사회-국가에 의하여 조성된 제도적 여건 위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설동훈, 2015).

이민정책(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은 ‘국